

##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

박인자\* · 조동혁\*\* · 송희정\*\*\*

본 연구는 부모의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방안을 제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9.0와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 그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그리고 부모 자율성 지지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자율성 지지는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양육 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율성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 그림, 부모 자율성 지지, 학교적응

---

논문 투고일: 2025. 10. 07.      최종심사일: 2025. 11. 14.      게재확정일: 2025. 12. 26.

\* 송실대학교 프로젝트 경영학과 박사과정

\*\*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송실대학교 프로젝트 경영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Dong Hyuk, Jo. Soongduk Economic and Business Building, Roo m 527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E-Mail : joe@ssu.ac.

## I. 서론

오늘날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서 개인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Vikhman · Romm & Vilberger, 2018).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단순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핵심적 발달과업으로 간주된다(정현숙 · 유계숙 · 어주경 · 전해정 · 박주희, 2010).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개인, 사회 구성원 및 시민으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Azhar, 2023), 초등학교는 아동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교육 환경에 진입하는 시기로, 체계적인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공식적 사회화 집단이다(Cooley, 1909).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아동은 발달과업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도 강조된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과업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은 근면성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업 수행,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이 성인기의 삶의 질과 사회적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원경 · 권희경, 2019; Ladd · Kochenderfer, & Coleman, 1996). 또한,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진 아동은 안정적인 정서와 행동 특성을 갖추고, 교우관계 및 학습 환경에서 높은 만족도와 성취를 경험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게 된다(전현희 · 김성화 · 홍세희, 2020).

한편, 교육부(2024)의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업 중도 포기율은 0.7%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교육부, 20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2024)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학업 중단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19%, 2022년 22%, 2023년 23.6%로 증가 추세였으며, 비록 2024년 20%로 소폭 감소했지만, 초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부의 한국의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인 학교부적응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정기섭, 2024). 이에 따라 학교부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윤희상, 2025; 장향심 · 조한익, 2022; 김주연 · 김태욱, 2019).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 살펴보면, 아동의

유능감(최혜선, 2021), 학습준비도 및 학업능력(이성주·최우수, 2021), 자아존중감과 grit(최효식·이선영, 2024) 등이 있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역량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외부 요인 중 가족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애착(민미희, 2023; Zemančíková, 2022), 양육태도(정연아·박해미, 2022; 김도희, 2021), 성취압력(연은모·최효식, 2022; 최혜선·한세영, 2021), 부모교육참여(강수정, 2021; 홍예지·장유진·이강이, 2021)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나 부부관계 등 더 넓은 가족 맥락에서의 영향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도 나타났다(송현주·권미경·기쁘다·박다운·박혜근·성지현·송경희·이새별·이윤하·전경선, 2022). 이렇듯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는 매우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지식은 자녀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건강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진시킬지에 관한 일상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Zuckerman & Keder, 2015). 이러한 지식이 풍부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발달 수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다(Grusec & Goodnow, 1994).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자녀의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부모 한 명의 응답을 전체 부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의 부모가 응답한 경우라도,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라는 용어가 부·모 중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특성이나 심리적 자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으로 ‘부모 grit(parental grit)’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주목받는 grit(grit)은 개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열정을 유지하는 성향으로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과 ‘노력의 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Duckworth·Peterson·Matthews, & Kelly, 2007). 부모 grit 척도연구에서 ‘그릿은 장기적인 양육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부모의 심리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Teuber·Datu·Botes·Dicke·Jordan·Lan·Iliescu·Guo, & Greiff, 2025). 즉, 부모가 양육이라는 삶의 주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태도를 부모 grit으로 간주한 것이다. 부모 grit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grit은 자녀의 협동심(강보은, 2021)과 학업 열의(전은옥·손은경, 2023)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과 생태학적발달이론(Bronfenbrenner, 1979))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부모 그릇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그릇은 자녀의 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황용재 · 김창겸, 2020; Joy · Prathap · Rajan, & Vandana, 2020), 특히, 아동의 그릇은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숙 · 김정은, 2024).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적응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그릇이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관계 분석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성지호 · 강보은, 2022),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기반으로 한 양육방식이 자녀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다(Fernández-Martín · Arco-Tirado · Mitrea & Littvay, 2023).

자율성 지지는 개인에게 선택권과 주도성을 부여함으로써, 관계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지원하고 내재적 자율동기를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며(Deci · Ryan · Gagné · Leone · Usunov & Kornazheva, 2001),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자율성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중 하나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 자기결정성, 그리고 내재적 동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황용재 · 김창겸, 2020; Joussemet · Landry, & Koestner, 2008).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자율성 충족은 아동기의 발달, 성장 및 적응 뿐 아니라 전 생애에 발달에 필수적이다(Grolnick & Lerner, 2023).

최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또래관계(손인봉 · 최정아, 2021), 사회적 유능성(이소영 · 심혜원, 2020),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Kelso-Marsh · Malpique, & Davis, 2025), 자기조절력(김은 · 최윤정, 2024)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학교 내 역량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지표가 높았으며, 교사 평가한 아동의 역량 및 교실적응, 학업성취, 성적에도 긍정적이라고 나타났다(Grolnic & Ryan, 1989). 부모 자율성 지지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경로가 유의함을 나타냈고(Xia · Zhu, & Xing, 2024),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성 지지는 초등학교 4학년의 학업열의, 학업성취도 간의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이미라 · 전향신, 2020). 또한 부모의 그릇과 자녀 그릇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용재 · 김창겸, 2020). 이를 통해, 부모 그릇은 부모 자율성 지지를 강화하고, 부모 자율성 지지는 다시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 향상에 중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그림과 부모 자율성 지지,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은 아동 발달과 서로 긴밀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부모 요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 내적 자원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보다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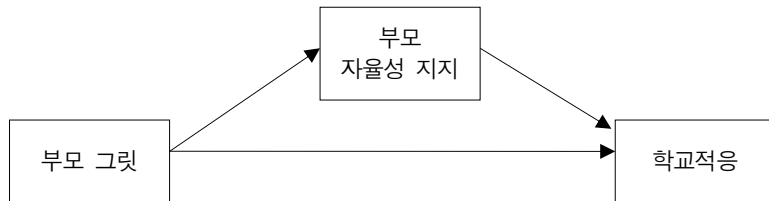
또한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정서적 불안,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교육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부모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부모 그림이 자율성 지지라는 양육 태도를 통해 자녀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통합적 접근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부모 특성과 양육 태도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부모 자율성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 그림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부모 자율성 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 그림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 그림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율성 지지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전문 온라인 패널 조사업체가 보유한 전국 패널 중 초등학교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온라인 구글폼(Google Forms)을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총 208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2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1차 예비조사(100명)와 2차 본조사(102명)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문항의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목적이었으나, 측정 도구에 유의미한 수정 사항이 없어 본조사와 동일한 모집단에서 수집된 자료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설계의 효율성을 위해 두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대상	구분	응답자 수(n=202)	백분율(%)
부모성별	남자	98	48.5
	여자	104	51.5
부모연령	30대	49	24.3
	40대	147	72.8
	50대 이상	6	3
부모학력	고졸이하	16	7.9
	전문대졸	26	12.9
부모학력	대졸	136	67.3
	대학원졸	24	11.9

맞벌이여부	맞벌이	92	45.5
	외벌이	110	54.5
자녀성별	남아	108	53.5
	여아	94	46.5
자녀나이	만6세	3	1.5
	만7세	28	13.9
	만8세	30	14.9
	만9세	31	15.3
	만10세	40	19.8
	만11세	36	17.8
	만12세	34	16.8

### 3. 연구도구

#### 1) 부모 그릿

부모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등(2007)의 Grit-O 척도(12문항)를 기초로, 반지와 조동혁(2021)이 10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본 연구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이라는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Teuber 등(2025)의 부모양육 문항구성을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두 하위 영역으로 유지하되, 의미가 반복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자녀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목표에 대해 열정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부모 자율성 지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율성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양아름과 최은실(2024)이 개발한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6요인 양육태도 척도 중 자율성 지지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본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자율성 지지 문항은 전반적인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개념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13)의 기본심리욕구 이론(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 행동(자율성 지지, 구조, 온정)과 좌절시키는 양육 행동(통제, 비밀관성, 거부)으로 구성된 6개 요인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율성 지지’ 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이가 스스로 흥미나 활동을 선택하게 한다.’ ‘나는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등이 있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3)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Birch와 Ladd(1997)의 학교적응 척도 12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관찰 가능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특성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 특성을 부모가 직접 관찰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발달 및 상담심리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정서적 태도, 학습 참여, 또래 및 교사 관계를 포함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자녀는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자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등이 있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4) 연구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적재치는 0.5이상이면 중요변수로 판단한다. KMO측도는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0.00으로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모 그림 .927, 부모 자율성 지지 .882, 학교적응 .852로 신뢰도는 모두 0.7이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변인	측정문항	성분				Cronbach's Alpha
		1	2	3	공통성	
부모 그릿	노력지속5	.788	.130	.070	.642	.927
	노력지속4	.787	.128	.212	.681	
	흥미유지4	.786	.189	.034	.654	
	노력지속3	.780	.212	.192	.690	
	흥미유지3	.768	.181	.236	.678	
	흥미유지1	.758	.048	.198	.616	
	흥미유지5	.736	.164	.068	.573	
	노력지속2	.710	.279	.257	.648	
	흥미유지2	.683	.259	-.100	.544	
부모 자율성 지지	노력지속1	.633	.274	.305	.569	.884
	자율성지지5	.207	.822	.158	.733	
	자율성지지3	.244	.819	.204	.729	
	자율성지지2	.239	.812	.109	.744	
학교적응	자율성지지4	.219	.790	.246	.733	.865
	학교적응4	.192	.211	.822	.757	
	학교적응2	.080	.087	.814	.677	
	학교적응3	.164	.143	.810	.703	
	학교적응1	.167	.215	.789	.696	
고유값		5.87	3.77	3.31		
분산설명(%) 회전제곱합 적재값		29.3%	18.8%	16.5%		
KMO		.912				
Battlet의 구형성검정(유의 확률)		0.00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안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IBM SPSS 29.0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응답한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이 특성에 관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 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여 정규성과 분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부모 그릿, 부모 자율성 지지, 학교적응에 대한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부모 그릿의 평균은 5.348(SD = .845)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488, 첨도는 1.379으로 분석되었다. 왜도와 첨도 모두 ±2 범위 이내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자율성 지지의 평균은 5.256(SD = .977)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505, 첨도는 .559으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의 평균은 5.647(SD = .96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왜도는 -.990, 첨도는 1.610로 역시 정규분포의 범위 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 분석의 전제 조건인 정규성 가정을 충족함을 시사하며, 향후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에 적절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표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	초등학교 자녀의 부모				
	N	M	SD	왜도	첨도
부모 그릿	202	5.348	.845	-.488	1.379
부모 자율성지지	202	5.256	.977	-.505	.559
학교적응	202	5.674	.965	-.990	1.610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그릿은 자율성 지지( $r=.515, p<.000$ ) 및 학교적응( $r=.392, p<.000$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그릿이 높을수록 부모 자율성 지지 수준과 학교적응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자율성 지지와 학교적응( $r=.425, p<.000$ )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

요 변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 그릿이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부모 성별만이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연령·학력·맞벌이 여부와 같은 일반적 특성 또한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해당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부모 그릿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인	부모연령	부모학력	부모성별	맞벌이	부모 그릿	자율성지지	학교적응
부모연령	1						
부모학력	.098	1					
부모성별	-.082	.107	1				
맞벌이	-.068	.070	-.092	1			
부모 그릿	-.138	.131	.028	-.002	1		
부모 자율성지지	-.073	.091	.062	.001	.515**	1	
학교적응	.007	-.078	.148*	-.056	.392**	.425**	1

\*p<0.05, \*\*p<0.01

Reference group : 부모성별\*남성, 부모학력\*고졸 및 전문대졸, 부모연령\*40대

##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그릿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자율성 지지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 1) 부모 그릿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검증

부모 그릿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모델 1에서는 부모 연령, 학력, 성별,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

로 투입하였으나 전체 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R^2=.028$ ,  $F=1.405$ ,  $p=.234$ ). 통제변인 중 부모 성별만이 학교적응에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영향력을 보였으나( $\beta=.139$ ,  $t=1.958$ ,  $p=.052$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모델 2에서는 부모 그릇을 추가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R^2=.200$ , 수정 $R^2=.185$ ,  $F=9.810$ ,  $p<.001$ ), 부모 그릇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24$ ,  $t=6.500$ ,  $p<.001$ ). 또한 모델 2에서는 부모성별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beta=.151$ ,  $t=2.330$ ,  $p<.05$ ),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학교적응 보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 연령, 학력, 맞벌이 여부는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부모 그릇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	B	SE	$\beta$	t	
통제변수	부모연령	.047	.154	.022	.308	.190	.141	.088	1.345
	부모학력	-.149	.169	-.063	-.883	-.295	.155	-.124	-1.901
	부모성별	.268	.137	.139	1.958	.290	.125	.151	2.330*
	맞벌이	-.072	.137	-.037	-.528	-.052	.125	-.027	-.417
독립변수	부모 그릇				.484	.075	.424	6.500***	
통계량	$R^2=.028$ , $F=1.405$ , $p=.234$ ,				$R^2=.200$ , $F=9.810$ , $p=.000$ , Durbin-Watson=1.662				

\* $p<0.05$ , \*\*\* $p<0.001$ , Reference group : 부모성별\*남성, 부모학력\*고졸 및 전문대졸, 부모연령\*30대

## 2) 부모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부모 자율성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부모 자율성 지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420$ ,  $t=6.635$ ,  $p<.001$ ).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180$ , 수정 $R^2=.176$ 으로, 부모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약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44.028$ ,  $p<.000$ ).

<표 6> 부모 자율성지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계수						
	B	SE	$\beta$	t	p	VIF	
학교적응	상수	3.469	.338		10.262	.000	
	부모 자율성지지	.420	.063	.425	6.635	.000	1.00

### 3) 부모 그림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매개적 영향 검증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자율성 지지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단계적 검증 절차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 그림이 매개변인인 부모 자율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72.024,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그림은 부모 자율성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515, p<.001$ ). 즉, 부모 그림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율성 지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 분석에서는 부모 그림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그림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6.228, p<.001$ ), 설명력은 15.3%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그림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92, p<.001$ ). 이는 부모 그림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부모 그림과 부모 자율성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그림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beta=.235, p<.001$ ), 그 효과 크기는 2단계( $\beta=.392$ )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 자율성 지지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04, p<.001$ ).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22.1%였으며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8.253, p<.001$ ). 이러한 결과는 부모그림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부모 자율성 지지를 통해 매개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부모 자율성 지지의 매개적 영향 검증**

단계	경로	B	SE	$\beta$	t	R <sup>2</sup>	F
1	부모그릿→부모자율성지지	.595	.070	.515	8.487***	.265	72.024***
2	부모그릿→학교적응	.447	.074	.392	6.019***	.153	36.228***
3	부모그릿→	.269	.083	.235	3.226***	.221	28.253***
	부모자율성지지→학교적응	.300	.072	.304	4.162***		

\*\*\*p<.001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하한값(BootLLCI)과 상한값(Boot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Hayes, 2022). 분석 결과, 부모 자율성 지지를 매개로 한 부모 그릿의 간접효과는 .211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1137, .3199)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그릿을 높게 가질수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양육 태도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즉, 부모 그릿은 초등학교 학생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율성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부분매개 모형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모 그릿과 초등학교 자녀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부모 자율성 지지의 부분매개 효과 유의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부모 자율성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독립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부모 그릿	.179	.054	.083	.290

Bootstrap sample =5,00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그림과 부모 자율성 지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그림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과 긍정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그림은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수정·서현아, 2023)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꾸준함과 인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할수록, 자녀 역시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 및 또래 관계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 그림은 부모 자율성 지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그림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문민경, 2025)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즉, 장기적인 양육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을 갖춘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지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가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모 그림과 부모 자율성 지지는 모두 자녀의 학교적응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지지되었다. 이는 부모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성별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참조집단을 남성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 아버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학교생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성 부모가 여성 부모에 비해 자녀의 학교적응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지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특성을 분석할 때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 그림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그림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 목표를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는 자녀가 학교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단기적 성과보다 자녀의 발달을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양육 태도가 아동의 긍정적 적응을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Grolnick & Pomerantz, 2009). 더불어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그릿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그릿은 자녀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보호적 조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경주·김석범, 2024). 또한 어머니의 그릿은 자녀의 학업열의를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어(전향신·박분희, 2020; 전은옥·손은경, 2023), 부모 그릿이 자녀의 전반적 학업·정서 적응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양육 자원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양육 환경에서 부모 그릿을 증진하는 교육·상담적 개입은 자녀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향성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 자율성 지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 그릿이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하는 태도가 자녀의 일상적인 학교 경험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 환경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내적 동기를 강화하며(Grolnick & Ryan, 1989),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또래관계와 학업 장면에서 요구되는 자기조절과 사회적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Joussemet et al., 2008; Eisenberg·Cumberland, & Spinrad 1998).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는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수업참여를 높인다는 결과(임성애·이은주, 2020)와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학교적응을 증진한다는 보고(정연아·박해미, 2022; 김선미·이지원, 2023; 김윤정·배화옥, 2024)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 긍정적 양육 방식인 부모 자율성 지지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ndura(1997)의 사회인지이론 Bronfenbrenner(1979) 생태체계이론과 부합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함을 뒷받침한다.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그릿 개념(Duckworth et al., 2007)이 제시하는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 있게 해석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로서, 부모의



내적 특성과 양육 행동은 아동의 일상적 발달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환경요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부모 그릿 → 부모 자율성 지지 → 학교적응’의 경로는 부모의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심이 양육 실천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양육 행동이 다시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긍정심리학에서 그릿은 개인의 지속적 노력과 장기적 목표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심리 자원으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연결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사회적 적응을 강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본 연구가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실천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의 설명틀을 보다 구체적·실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틀 안에서 부모 자율성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부모 특성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적 욕구 충족이 작동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 그릿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율성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 이론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부모 요인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부모의 성격 특성과 양육 행동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서 부모 그릿을 함양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그릿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가 자녀양육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를 강조하는 부모 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어머니의 그릿 코칭에 관한 연구(도미향 · 민경아, 202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그릿을 강화하는 부모 교육 전략이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에 있어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자녀의 학교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특히 자율성 지지 중심의 부모 양육방법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환경을 가정 차원에서도 촘촘하게 마련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적 연구설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 그릇, 자율성 지지,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짓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초등학생의 학교부적응은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접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종단적 연구가 시간에 따른 인과적 경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장점은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은 횡단적 접근은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변수 간 초기 관계 설정,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연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조화하고, 향후 실천적 개입 전략 개발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모두 부모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연구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 또한 부모의 관점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실제 자녀의 경험이나 객관적인 학업 자료와의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기보고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 반응, 학습 태도,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을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주요 양육자로서, 자녀의 적응 상태에 대해 비교적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양육 역량(부모 그릇)과 자녀의 학교적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한 외부 평가를 넘어서 부모의 자기이해를 반영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일부 응답에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실천 전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보고식, 부모-교사 보고식 등 다원적 자료 수집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 자율성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부모 그릇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심리사회적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매개 및 조절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여 부모 그릇의 작용 기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부모의 그릇의 심리적 자원과 그리고 자율성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 태도 요소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 자녀의 발달 지원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모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보은(2021).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자녀 그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 연구, 31(3)**, 409-435.
- 성지호·강보은(2022). 부모의 그림이 자녀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5(1)**, 31-56.
- 강수정(2021).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참여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2)**, 173-183.
- 교육부(2024, 8월 29일).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402\\_siew6548\\_2017\\_60\\_1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ES2017\\_039%26vw\\_cd%3DMT\\_ZTITLE%26orgId%3D402%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402_siew6548_2017_60_10%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ES2017_039%26vw_cd%3DMT_ZTITLE%26orgId%3D402%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 김도희(2021). 부모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ADHD 성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특수교육연구, 28(3)**, 1-26.
- 김선미·이지원(202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림 (Grit)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5(3)**, 97-114.
- 김원경·권희경(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19.
- 김윤정·배화옥(202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17(2)**, 5-30.
- 김은·최윤정(2024).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영상미디어 이용조절능력과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61(4)**, 150-204.
- 김주연·김태옥(2019).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부적응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721-739.
- 김지숙·김정은(202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그림과 학교적응의 구조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4)**, 65 - 74.
- 도미향·민경아(2025). 영유아 어머니의 그림코칭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3)**, 113-132.
- 문민경(202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림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3)**, 263-288.

- 민미희(2023). 어머니에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30(2)**, 51-64.
- 반지·조동혁(2021). 외국인 유학생의 그림, 자기주도성, 학업적효능감 및 진로준비 간의 관계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8(6)**, 70-90.
- 성경주·김석범(202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그림의 조절효과. **한국융합과학회지, 13(8)**, 203-216.
- 손인봉·최정아(2021). 지지적 양육행동, 우울, 협동심, 또래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10(5)**, 332-348.
- 송현주·권미경·기쁘다·박다운·박혜근·성지현·송경희·이새별·이윤하·전경선(2022). **최신발달심리학**.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양아름·최은실(2024).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6요인 양육태도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7(3)**, 1-29
- 연은모·최효식(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 윤희상(2025).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을 위한 중재: 체계적 문헌분석. **초등상담연구, 24(1)**, 1-21.
- 이미라·전향신(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림,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외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 이성주·최우수(2021). 유아의 학습준비도, 학업능력과 초등학교 적응, 학업수행능력 간 구조적 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223-242.
- 이소영·심혜원(2020). 모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와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3(1)**, 19-42.
- 이수정·서현아(2023). 유아 부모의 긍정심리자본과 자녀 어린이집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림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8**, 31-50.
- 임성애·이은주(2020).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수업참여의 관계: 이중과정모형의 적용. **교육심리연구, 34(2)**, 259-283.
- 장향심·조한익(2022). 초등학생의 열등감, 사회적 위축 및 학교부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회복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교육, 31(4)**, 179-201.
- 전은옥·손은경(2023). 어머니 그림이 아동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주의집중과 그림의 다중 매개효과. **문화와융합, 45(5)**, 637-649.
- 전향신·박분희(2020). 어머니그림, 자녀그림,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 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전현희·김성화·홍세희(2020).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조사연구, 21(3)**, 113-140.
- 정기섭(2024).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정책에 나타난 학생 이해와 교육적 과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5)**, 451-468.
- 정연아·박해미(2022). 취학 전 유아기 가정환경자극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교준비도와 학교 적응 간의 차이. **아시아여성연구, 61(3)**, 95-126.

- 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2010). **부모학**. 서울: 신정
- 최혜선(2021).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아동의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3(1)**, 81-99.
- 최혜선·한세영(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499-510.
- 최효식·이선영(2024).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스트레스,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 525-539.
- 홍예지·장유진·이강이 (202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화 및 어머니의 교육참여 예측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42(2)**, 219-231.
- 황용재·김창겸(2020). 부모의 그릇이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자율성지지와 강요에 의한 다중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4)**, 27-47.
- Azhar, S.(2023). Desain pengembangan pendidikan inklusi di sekolah dasar santa angela bandung. *Didaktik: Jurnal Ilmiah PGSD STKIP Subang*, *8(2)*, 2470 - 2481.  
<https://doi.org/10.36989/didaktik.v8i2.560>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irch, S. H., & Ladd, G. W.(1997). The teacher - 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 - 79. [https://doi.org/10.1016/S0022-4405\(96\)00029-5](https://doi.org/10.1016/S0022-4405(96)00029-5)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
- Cooley Charles, H.(1909).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the larger mind*.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 Deci, E. L., & Ryan, R. M.(2013).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 - 942. <https://doi.org/10.1177/0146167201278002>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 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 Norton.

- Fernández-Martín, F. D., Arco-Tirado, J. L., Mitrea, E. C., Littvay, L.(2023). The role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intergenerational covariation of grit. *Current Psychology*, 42(24), 20872-20882.
- Grolnick, W. S., & Lerner, R. E. (2023). How parental autonomy support, structure, and involvement help children flourish: Considering interactions, context, and diversity.
- Grolnick, W. S., & Pomerantz, E. M. (2009). Issues and challenges in studying parental control: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3), 165-170.
- Grolnick, W. S., Ryan, R. M.(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 - 154. <https://doi.org/10.1037/0022-0663.81.2.143>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
- Joussemet, M., Landry, R., Koestner, R.(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194.
- Joy, K., Prathap, V., Rajan, A. P., & Vandana, V. S.(2020). Influence of parent's grit on student's grit and the effect of other social determinants upon the relation.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2).
- Kelso-Marsh, B., Malpique, A. A., & Davis, H.(2025). Motivation matters: The positive influence of parental involvement on children's writing outcome. *Journal of Writing Research*, 17(2). <https://www.jowr.org/jowr/article/download/1483/1003>
- Ladd, G. W., Kochenderfer, B. J.,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 - 1118.
- Teuber, Z., Datu, J. A. D., Botes, E., Dicke, T., Jordan, G., Lan, X., Iliescu, D., Guo, J., & Greiff, S. (2025). Gritty Parenting: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Grit Scale. *Assessment*, 32(7), 1120-1141.
- Vikhman, V. V., Romm, M. V., & Vilberger, M. E.(2018, April). Phenomenon of social adaptation in modern socio-economic changes in society. In *International Conference. Actual Issues of Mechanical Engineering (AIME 2018)* (pp. 612-617). Atlantis Press.
- Xia, H., Zhu, L., & Xing, X.(2024).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7, 107160.
- Zemančíková, V.(2022). Vztahová väzba dieťaťa a jej dôsledky pre výchovno-vzdelávací proces v škole. *Studia Scientifica Facultatis Paedagogicae Universitas Catholica Ružomberok*, 21(5), 162-172.
- Zuckerman, B., Keder, R. D., Lerner, R. M., Bornstein, M. H., & Leventhal, T. (2015). Children in medical setting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4, 574-615.

Abstract

## The Influence of Parental Grit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Park, Inja\* · Jo, Donghyuk\*\* · Song, Heeju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arental grit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es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in this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parent education strategies that may enhanc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02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among parental gri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Second, parental grit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ird, parental autonomy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gri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arents' sustained commitment to child-rearing goals, consistent effort, and provision of autonomy support in promoting children's successful adjustment to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of parent-education programs that foster parental grit and strengthen autonomy-supportive parenting practices is recommended.

**Keywords** : parental grit, autonomy support, school adjustment

---

\* Doctor's Student, The Dept. of Project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 Ph.D. Professor, Th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 Doctor's Student, The Dept. of Project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